



뉴질랜드, 최대 낙농목장 중국 매입 논란

뉴질랜드 북섬 최대 목장 중 하나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최근 매입 인수한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핑싱그룹은 최근 파산한 뉴질랜드 북섬 내 7천9백헥타에 달하는 16개 목장을 1억6천4백만달러에 인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 내 농지 중 외국인들이 소유한 면적은 1%에도 못미친다며 이번 거래를 승인하였지만 농민단체 등은 이번 거래가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은행 연합 등과 함께 이번 거래를 법적으로 중단하게 하고 자신들이 염가에 목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미국과 독일 투자가들도 얼마전 뉴질랜드 농장을 인수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일종의 외국인 공포증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08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뉴질랜드는 중국이 최대 무역거래국이고 자국 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유제품의 최대 수입국인 것을 감안 중국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bcnews.go.com 1월27일자)

일본, 구마모토현 우유 해외 수출 적극 추진

일본 구마모토현 낙농조합협회가 지역 내 생산된 우유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현재 일본산 우유의 해외 수출은 주로 북해도산이 이루지고 있는데 구마모토 낙농조합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개방이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기보전 가능한 멸균유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해외 수출은 '07년 홍콩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후 대만과 상하이등에 진출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는 싱가포르에 수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마모토현은 일본 서부지역 최대 우유생산지역으로 연간 24만톤의 우유를 생산하나 이중 수출량은 미미하여 '10년 기준 90톤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신규 대상국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개척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는 목장건립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유업계는 자국 내 우유 판매는 정체되어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이거나 최근의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으며, '10년 일본 전체 수출물량은 2천9백톤으로 이중 북해도산이 2천7백톤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1월24일자)

일본, 우유생산량 향후 3년간 감산하지 않는다

일본 우유수급관리 기구인 중앙낙농회의는 일본낙농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지하기 위해 자국내 우유생산량을 향후 3년간 감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금년도 음용이나 가공 원료유에 활용되는 원유생산량은 낙농가의 생산의욕고취를 위해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694만6천톤으로 잠정 결정하고 치즈등에 쓰이는 물량을 감안하여 최종 물량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생산목표량 발표는 낙농가의 중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세우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로 환태평양 경제연합 참가나 원자력 발전사고등으로 우려되는 낙농가의 생산의욕의 저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정단체별 생산량 배분은 현재 판매기준 수량 683만3천톤에 버터등 특정유제품 공급 조절용 11만천톤, 신규 낙농가용 2만5천톤을 감안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농업신문 2월14일자)